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통해 본 유치원 생활의 의미

The Meaning of Kindergarten Experiences of First Graders

황해수(Hae Soo Hwang)¹⁾

손원경(Won Kyoung Son)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meaning of kindergarten experiences of first graders with the use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0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eleven interviews per person and journal writings, the voice of participants was condensed into three categories : (1) Kindergarten life was new and delightful; (2) they were limited in assertion of their rights; and (3) they experienced separation and longing. We should understand children's experience by their explanations and give consideration to children not as objects but as subjects. By doing so, we can provide more meaningful experiences to children in kindergarten.

Key Words : 초등학교 1학년(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유치원 생활(life in the kindergarten),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

I. 서 론

생애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유치원생활은 최초의 공식적인 교육제도로 유아가 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역할을 배우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유아들이 유치원생활을 경험하

는 기간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해 가는 진입로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 인간의 삶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유치원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유치원에서 유아에게 제공되는 환경과 경험들이 성인의 편의나 관점에서가

¹⁾ 신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²⁾ 신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Won Kyoung S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ersity, San 1-1, Gwaebop-Dong, Sasang-Gu, Busan 617-736, Korea
E-mail : jsfarm@hanmail.net

아니라 유아에게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할 것이다.

하나의 사건, 사물, 실재를 어떠한 현상으로 보는가 하는 관점은 보는 위치와 시각에 따라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성인의 시각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펼쳐주고 싶어 하는 생활세계가 생활의 주체자인 유아의 입장에서도 공유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성혜와 손영수(2001)에 의하면, 생활세계의 의미는 개인이 속한 상황, 해석하는 주체의 사전구조, 그리고 해석되어지는 텍스트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보고, 개인이 속한 특수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형성되는 자신의 사전구조를 기폭제로 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의 언어를 통하여 텍스트에 드러나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대상을 지각함에 있어서 유아들은 성인들과는 다른 고유의 대상 지각 방식을 갖고 있다(조상식, 2002).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아동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른의 눈을 통해서 보다는 아동들의 눈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Beekman, 1983; Fine & Sandstorm, 1988).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유아의 눈을 통해 그들의 생활을 탐구해 보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기숙과 Morrison(김민진, 2008, 재인용)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유사한 발달 특성들로 인해서 유치원 아동과 함께 유아기에 속하는데, 이 시기의 아동들은 무엇을 가만히 앉아서 학습한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흥미와 호기심,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반응하며 발달을 이룬다고 하였다.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하나를 놓고 들여다보는 것과 비교의 현상이 있을 때, 그리고 보고자 하는 현상에서 조금 벗어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안목 등이 있을 때 이해의 폭은 다를 것이다. 현재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는 유아의 이해와 유치원 생활에서 이제 막 벗어나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거친 초등학교 1학년 후반부에 있는 아이들의 이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유치원 생활 세계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의미를 탐구해 보는 것은 현재 순간순간 체험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단체생활이며 하나의 공식적인 교육과정만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로 비교의 대상이 없이 현상하나로 의미를 구성하고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발달 단계에 있어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에 한계가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초등학교 1학년생은 유치원아동과 유사한 발달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치원과정을 지나 초등학교과정을 경험하고 있어 비교를 통한 기준을 갖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유아의 제한적인 면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체험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 지나간 유치원 생활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회상적 경험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며 유치원생활이 유아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그 현상을 이루는 본질, 즉 경험의 심층에서 형성되는 풍부하고도 세밀한 체험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주력하게 된다(유혜령, 1999).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의미를 기술한다(Creswell, 2005). 따라서 유아들에게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기초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유치원 생활이 유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유아들이 경험하는 유치원 생활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들이 체험한 유치원 생활에 대한 기억, 이미지, 의미에 기인한 의식 모두를 포함하여 표현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경험적 이야기를 통해 유치원 생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은 유아를 유아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 유치원 생활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지 현상을 파악해 봄으로써 유치원 생활이 유아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1학년아동에게 유치원 생활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부산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10명으로 이 학생들은 방과 후에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학원에 수개월째 다니고 있어 학교에서 학급이 달라도 이름, 반, 학원에서의 생활 등 기본적인 각자의 정보를 서로 알고 지내고 있다. 10명 중 7명은 초등학교 가까이 있는 S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중 4명은 S유치원의 경험만 있고 그 외 3명은 S유치원 이전에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각기 다른 유치원을 다녔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학원, 놀이터 등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친숙한 상태에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이름(가명)	성별	유치원 경험
고가영	여	B, S 유치원 3년
김사랑	여	S 유치원 2년
박소정	여	S 유치원 2년
박현주	여	C, S 유치원 3년
오지민	남	D, S 유치원 2년
이영준	남	S 유치원 3년
이민영	여	E, F, G 유치원 3년
임주현	여	S 유치원 2년
임호정	여	S 유치원 3년
장민수	남	H 유치원 3년

있어 면담 시 아이들이 의견을 부담 없이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은 이들이 다니고 있는 방과 후 학원생 중 초등학교 1학년아동을 대상으로 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구두로 물어본 후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로 선정하였다. 면담의 내용을 사전모임에서 이야기 하고 본인의 의견을 조사한 후 부모님 또한 긍정적인 의견일 경우만 면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1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 10명에 대하여 2008년 10월 14일에 예비모임을 통해 연구의 주제에 대해 설명한 후 본 면담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11월 21일까지 총 10회를 실시하였고 분석과정에서 부분적인 추가적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후면담 1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매회 면담을 마치고 그날의 주제와 관련된 저널쓰기를 하였다. 면담은 조용하고 안정된 학원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방식은 개별면담보다 집단면

답이 유아의 반응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조경자, 2005) 아동시간의 편리성에 의해 참여자 10명을 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면담시간은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15분에서 30분정도 금요일마다 각각 1시와 3시 30분에 5주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면담형식은 비구조화 형태로서 면담내용에서 다음의 주제를 결정하여 연결해 가며 진행하였다. 한번 면담을 할 때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아동들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추가질문과 대화가 전개되기도 하였으며 매주마다 주제를 달리하였다. 즉 유치원 생활하면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 주제로 던진 후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음 주제를 찾아 유치원생활에서 즐거웠던 일 또는 싫거나 속상했던 일,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과 초등학교 생활에서의 다른 점, 유치원 생활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주제로 면담을 하였으나 초등 1학년생으로 아쉬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을 통해 추가면담으로 ‘동생들에게 어떤 유치원 생활이 되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통해 유치원 생활에 대한 아쉬움 또는 반영하길 원하는 요구를 찾고자 하였다. 모든 면담과정은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와 달리 질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해 요지를 벗어난 대답을 하는 경우의 아동도 종종 나타났다. 이때는 다시 쉬운 표현으로 재설명하여 면담의 주제를 이해시키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의 이야기가 의미전달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의 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학교는 교과서가 있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을 차례로 배우는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고 민영이

가 말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건가요?’와 같이 반문하며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약 진술 사용하기는 면접 중에 나온 이야기에 대한 통합과 이해의 확신을 얻는데 유용(곽금주, 2002)하였다.

면담 1회 때 저널이란 무엇인지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그들이 경험한 일기쓰기와 비교하여 설명한 후 그 날의 면담주제와 관련해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쓰도록 하였다. 저널쓰기의 양이나 쓰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쓰도록 하여 저널쓰기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갖지 않도록 하였다. 10회 면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자와 만나 이야기 했던 과정이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으며,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구체적으로 자료선별단계, 내용통합단계, 유목화를 통해 범주를 구성하는 단계, 범주별 주제어 도출단계, 연구자간 토의 및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주제와 관련된 대화의 틀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김민진(2008)의 연구에서도 초등 1학년과의 면담과정에서 주제와 관련 깊지 않은 이야기 등으로 확대되기도 하여 첫 단계에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듯이 본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맞은 친구이야기’ 등과 같은 주제와 관련이 적은 자료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먼저 하였다. 다음은 전사된 면담내용과 저널쓰기, 현장기록 등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 내용을 통합한 후 관련되는 내용별로 분류 분석하여 내용을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 작업에 이어 범주별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다시 하위 주제별로 재분류하며 심층적으로 의미를 해석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 아동을 면접하여 아동에게서 얻는 정보를

해석할 때에는 이시기 아동의 인지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곽금주, 2002) 아동의 면담자료 외에 저널쓰기, 현장일지에 대한 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검토하였고, 연구자 2인이 지속적으로 토의하며 자료를 분석하는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Ⅲ 초등학교 1학년을 통해 본 유치원 생활의 의미

1. 새롭고 즐거운 경험

1) 함께 하는 즐거움

유치원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놀이를 하고 배우고 즐기는 신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바깥놀이터에서 즐거웠던 많은 경험과 선생님들과 웃으며 함께 한 다양한 활동들은 그들이 말하는 공부이며 놀이였으며, 그러한 것이 펼쳐지는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밀착된 삶이며 동시에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신나고 즐거운 공간이었다.

우리 선생님과 공부하고 또 컴퓨터로 노래배우고 동화를 들을 때도 재미있었어요. 바깥놀이 할 때 친구들과 선생님이 잘 놀아주고 선생님이 많이 웃어서 즐거웠어요.

(고가영, 2008년 10월 24일 저널쓰기)

유치원하면 친구들이 생각나요, 바깥놀이 시간에 같이 뛰어놀고 그네 타던 거, 아~주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던 것도 생각나고, 선생님 놀리기도 재미있었어요.

(이영준, 2008년 10월 24일 면담)

다양한 활동 즉 노래를 배울 때, 동화를 들을 때, 바깥놀이를 할 때, 간식 시간 등의 일상적인 유치원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움을 준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한 것과 관련된 사례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이 느끼는 즐거움 속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활동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전에 선생님과 함께 라서 또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기에 더욱 신나고 즐거웠던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2) 새로움과 신기함

아이들은 유치원 생활동안 현장체험학습이 자주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유치원은 새롭고 신기한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곳으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체험은 매우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나는 견학 갔던 것이 가장 생각나요, 수영장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소풍도 많이 가고... 친구들과하고 재미있었고, 도시락도 맛있고, 신기한 것도 많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적게 가요.

(임호정, 2008년 10월 24일 면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면담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모두 신이 나서 각자 기억에 남는 장소와 상황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현장학습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유치원은 새로움과 신기한 경험을 제공하는 즐거움이 많은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유치원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과 새롭고 신기한 것을 볼 수 있는 현장학습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며 많은 이야깃거리와 정보로써 기억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모임이어서인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몇 명의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듣기만 하고 있어서 말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주

있더니 어색해하며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나 짧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현장학습 이야기가 나오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2008년 10월 24일 면담1회시 현장노트)

유치원은 유아들에게 주변에 있는 자연체험활동, 시설 및 기관 방문체험 활동 등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유아기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한 많은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체험활동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움을 주고 있으며 더 많이 하고 싶은 경험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3) 보살피며 주는 선생님

유아교사란 엄격하게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잘 대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 인식하고, 이는 사랑과 관계를 토대로 하여 돌보는 마음,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이 유아교사의 핵심이다(임부연·최혜림, 2006). 이러한 유아교사의 실천은 아이들에게 보살핌과 가르침을 함께 하는 엄마와 같은 교사, 친구와 같은 교사로 좋아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그런 선생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종일반에서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빗어주고, 같이 놀아주었던 선생님이 생각이나요. 우리 선생님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래요. (임호정, 2008년 10월 24일 면담)

5살 때 선생님이 7살 때 선생님보다 우리를 더 잘 챙겨주시고, 우리랑 잘 놀아주셨어요. 공부는 조금밖에 안하고, 애들이랑 블록쌓기도 하고요. 바깥놀이를 할 때 ‘무궁화 꽃이 피었어요’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여우야’도 했어요. 그리고 6살 때 선생님은 저를 알아주시고, 우리 엄마도 알아주시고, 우리 친척도 다 알아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김치를 6살 때 잘 안 먹어서 선생님이 먹이려고 하고... 내가 속을 많이 썩었어요. (이영준, 2008년 11월 7일 면담)

유아교사의 보살핌과 친절함, 그리고 자상함에 대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유치원 생활에서 매우 깊이 기억되고 있었다. 면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 유치원 교사의 모습은 항상 웃고 따뜻하게 대하며 관심 가져 주는 보살핌을 실천하는 교사상으로 남아있었다.

아이들은 교사가 전달하는 가르침의 내용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미소와 격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유치원 생활 속에 선생님은 따뜻한 사랑을 주며 관계를 맺고 보살핌과 가르침의 경계를 오고 가는 교사상으로 남아있었다. 추가면담을 통해 유치원 생활에 반영하길 원하는 요구를 듣기 위해 ‘동생들은 어떠한 유치원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니?’라는 질문에서도 보살핌이 포함된 가르침이 되길 요구하고 있었다.

발표 할 때 틀렸어도 그냥 씩씩하게 잘 했다고 말해줘서 기뻐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뻐요. 선생님이 많이 떠오르고 보고 싶고 그래요. (박소정, 2008년 10월 24일 면담)

발표회 때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선생님이 앞에 앉아서 같이 해주시고 했던 모습이 멋지고 예뻐어요. 그래서 내가 춤출 때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고가영, 2008년 10월 30일 면담)

선생님이 혼도 안내고 착하게 대해주고 동생들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즐거운 생활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끼리 싸움도 안하고 즐겁게 지내며 평화로운 유치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웃는 모습으로 공부는 자세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민영, 2008년 12월 5일 추가면담)

2. 권리주장에 한계가 있던 생활

1) 공정한 평가

아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교사에

게 도움을 청했을 때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거나, 친구간의 갈등이 있을 때 교사가 공평하지 못한 평가를 하였을 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느꼈던 생활이었다.

친구랑 싸웠을 때 선생님한테 말했는데도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박소정, 2008년 10월 30일 저널쓰기)

친구랑 싸웠을 때 친구가 거짓말로 이야기해서 나만 혼났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잘 속아요. 내가 진짜 억울한데 안 억울한지 알고 있고요. 나쁜 애가 잘못했는데 착하게 굴고 안했다고 하면 믿어요. (이영준, 2008년 10월 30일 면접)

위의 영준이는 현재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1학년담임을 2년 동안 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데 유치원 선생님은 자기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해 속상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면담과정에서 유치원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매우 많이 표현했던 아동으로 이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을 때 강한 주장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갈등을 느끼며 속상함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성혜와 손영수(2001)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이 경험하는 긴장과 갈등은 또래들 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맡고 있는 유치원 교사와 관련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겪는 긴장과 갈등을 통하여 사회화를 이루며 성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그들은 생활세계 내에서 현재와 부재의 긴장을 경험하고, 긴장과 갈등이 잠재화되고 무시될 때의 아픔, 규율형성, 그리고 긴장과 갈등의 표출과 그 해결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나 교사의 의도된 갈등이 아

니라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여 느끼는 갈등은 유아에게 부정적 감정을 키울 수 있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인격적 존중

아이들은 자신들이 인격체로 존중될 수 있길 원하고 있었다. 특히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배설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남아와 여아 모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남녀의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부끄러움, 수치감 등의 감정을 더 느끼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화장실에서 아이들은 불쾌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이에 대해 배려하거나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은 화장실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는데 학교는 따로 써요. 유치원에서 같이 쓸 때 싫었어요. (박소정, 2008년 11월 14일 면접)

화장실에서 문만 닫고 소변을 보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열었어요. 그때 정말 짜증났어요. (박현주, 2008년 10월 31일 면접)

소변을 보는데 고추 크다고 놀린 것 그 것이 가장 싫었어요. 그때 이~~ 때려주고 싶었어요. (오지민, 2008년 11월 14일 면접)

유치원 생활에서 즐거웠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 한 아이가 ‘슬픈 이야기해도 돼요?’라고 질문해 와서, 슬프거나 가장 싫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에 몇 명의 아이들이 가장 싫었던 경험으로 화장실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위와 같이 하고 있어 교사의 시야를 벗어난 화장실에서 아이들은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는 불쾌감과 수치감 등을 느끼

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자기 스스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거나 상황을 처리하기에는 미숙한 유아에게 기본적 배설의 욕구를 해결하는 공간이 한 편으로는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이별과 그리움을 경험한 성장의 시간

1) 헤어짐이 주는 슬픔

가장 슬펐던 일로 많은 아이들이 졸업식을 이야기 하였다.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지는 공식적인 졸업식 경험은 아이들에게 헤어짐이 주는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는 경험에서도 헤어짐이 주는 슬픔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이랑 헤어지고 친구랑 헤어지는 졸업식 할 때가 제일 슬펐어요, 졸업식 할 때가 생각나요. 졸업식 때 선생님도 울었어요.
(박소정, 2008년 10월 30일 면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전학 갔을 때 너무 슬펐어요. (이영준, 2008년 10월 30일 저널쓰기)

아이들이 가정과 부모로부터 처음 격리를 하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 인간관계를 맺은 친구들과 선생님은 유치원 생활에서 생활세계와 정신세계에서 늘 함께였다. 이러한 깊은 관계를 맺은 대상과 헤어지는 경험은 헤어짐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2) 그리움이 가득

보살핌과 함께 가르침을 실천했던 교사들과 아이들은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런 관계를 맺었던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리움을 매우 크게 나타내고 있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학교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예뻐서 학원 선생님, 학교선생님,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만약 선생님을 만난다면 전화번호 물어봐서 편지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집을 찾아가고 이틀에 한 번씩은 가보고 싶어요. (이영준 2008년 10월 30일 면접)

선생님이 웃는 모습이 생각나고, 놀이터에서 이들의 예쁜 모습을 보면 초콜렛을 주던 모습이 생각나요, 선생님 목소리도 듣고 싶고 좋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친구들과 공부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떠오르고 너무 생각이나요. 그때가 즐거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민영, 2008년 10월 24일 면접)

선생님이랑 헤어질 때 속상하고, 슬프고, 눈물이 나서 헤어지기 싫었어요, 선생님이랑 헤어질 때 다시는 못 볼 것 같았어요, 좀 지나고 나서는 편지 보내고 싶었어요.
(박소정, 2008년 10월 30일 면접)

아이들은 볼 수 없는 선생님에 대해 무척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했다. 선생님이 말하고 웃고 걷는 것과 같은 모습이 생각이 나서 좋다고 표현하였고, 놀이나 교육활동 등을 같이 해주던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못한 정리를 도와주었던 것 심지어 ‘제가 사고 쳐도요 선생님은 내 편이에요’, ‘내가 모르면 계속 가르쳐 주고 웃어요’라는 표현을 통해 아이들에게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 주던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실 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친구들이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힘들어하니깐요’라는 표현을 하며 좋아하고 그리운 선생님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통해 유치원 생활에 대한 의미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성인 중심과 편이가 아닌 유아교육의 주체인 유아의 입장에서 유치원 생활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유치원생활 경험은 크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생활이었으며, 또한 이별과 그리움을 경험한 성장의 시간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의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에게 유치원 생활은 새로움과 즐거운 경험이 많았던 생활이었다. 친구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신나고 즐거웠고, 많은 신기함과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보살펴 주는 선생님이 있는 곳이었다.

아이들의 생활이 펼쳐지는 유치원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할 수 있어 신나고 재미있는 넓은 놀이터 공간이었으며, 특히 바깥놀이에서의 경험은 더 많은 이야기 거리로 남아있었다. 유아는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수단이자 목표로서 놀이를 하며, 환경과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를 더욱 정교하고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가며 유아의 놀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물리적, 사회적, 생리적, 정신적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기숙, 1985). 이러한 유아기의 특성에 따라 유치원은 바깥놀이 공간 및 실내 환경에서의 물리적 환경과 친구와 선생님이 함께 하는 사회적, 정신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하게 갖춰 그들에게 신나고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터 공간이 되어줄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유치원 생활은 유아가 세상을 이해하고 성장해 갈수 있는 놀이를 마음

껏 펼칠 수 있는 신나고 재미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치원 생활에서 경험했던 새롭고 신기한 경험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기억은 대체로 현장학습과 관련된 경험들로 그러한 경험들은 그들에게는 신나고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wey(1938)는 스스로 경험을 통하지 않는 교육은 산교육이 아니라고 보며 생생한 체험으로서의 경험을 중요시 하였다. 이처럼 유아에게 생생한 체험을 통한 산 교육들이 유치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자연과 이웃에 대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통해 실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 생활은 학습의 주체로서 유아가 지식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유아들이 요구하는 새로움과 신기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이들은 교사와 관련된 경험을 가장 많이 이야기 하며, 교사에게서 느꼈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면서 보고 싶어 했다. 양옥승(2004)은 유아교육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논할 때는 보편적으로 일컬어지는 가르치는 일에 합당한 전문적 능력만을 전문성의 본질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유아교사의 전문적 영역으로 보살핌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는 ‘보살핌’을 전문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사는 보살핌을 받게 되는 유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을 살펴 무엇이 필요인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보살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

서 아직 어린 유아에게 있어 유치원 생활은 교사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는 교사가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아이들에게 유치원 생활은 신나고 즐거우며, 새로움과 신기함이 많이 제공되는 곳으로써 보살피 주는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는 생활로써의 의미가 있다.

둘째, 아이들에게 유치원 생활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던 생활로 그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고 인격체로 존중되길 원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였을 때 그것이 무시되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와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 때에 그들은 강하게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길 원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한 평가는 기분이 좋지 않거나 속상함을 느끼며 마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이 유치원 생활에서 아직 자기주장의 정당성이나 권리를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유치원의 물리적 환경이나 교사의 관심이 좀 더 그들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환경은 아이들에게 부끄러움, 수치감 등의 감정과 불쾌함을 느끼게 하였다. 유아의 특성상 하루 일과동안 계속 관심과 손길을 필요로 하므로 교사가 다수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안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난 화장실의 공간 등은 많은 불쾌감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곳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치원 화장실이 시설 설비의 문제나 유아관리의 편리성 등 성인이나 교사의 편의의 입장에서 설치되기보다는 생활의 주체자인 유

아편의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배려되는 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아이들은 유치원 생활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교사의 깊이 있는 헤아림을 통한 공정한 평가를 해 주길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인격을 갖춘 한 사람으로 존중되길 원하나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며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판단 및 해결능력, 유아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환경구성 등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이성적 판단 및 다양한 감정이 발달하는 유아 시기의 유치원생활이 상황에 적절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되는 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친구의 전학이나 졸업이라는 경험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대상과 헤어지는 경험은 이별과 그리움이란 새로운 감정을 배우는 성장의 시간이었다. 친했던 친구의 전학이나 졸업이란 형식적 이별은 좋아하는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헤어짐이란 경험을 하게 하면서 이별의 슬픔에 대한 감정을 배우게 했다. 또한 헤어짐은 보고 싶다는 감정의 그리움을 배우게 했다. 특히 격려해주며 돌보아주었던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그리움을 넘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힘을 헤아리는 마음이 생길만큼 성숙하게 했다.

유치원생활에서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적절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유치원 생활은 유아에게 헤어짐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이 또한 성장과 갈등의 시간이 되고 있음

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유아에게 유치원 생활의 의미는 새로움과 즐거움을 많이 경험하는 생활이지만 아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생활이기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경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바라고, 실망하는’ 다양한 정서의 근원이자 인간이 사회·문화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관계적 그물망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이정금·김영란·강효정·한미라·임부연, 2007). 유아가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첫 사회 속으로, 공식적인 교육제도 속으로 들어와 경험하는 유치원 생활은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의미를 부여 하리라 본다.

유아가 경험하는 유치원 생활이 성인과 교육자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선택 제공하지 말고 실제 현상에 존재하는 유아의 입장에서 공유되고 의미 있는 경험이 제공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유아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성인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고, 교사편리위주가 아닌 유아의 입장과 관심이 고려되고 배려 된 유치원 생활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통해 그들의 시각에서 유치원 생활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대체로 단편적이다 보니 심층적인 의미파악에 한계가 있었던 점과 연구대상아동이 경험한 유치원의 프로그램, 환경, 교사진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아동의 면담을 통한 그들의 이야기에서만 현상을 파악하려한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치원 생활 속에서 이와 관련된 현장관찰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유

아의 입장이 고려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유치원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의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현장에서는 유아와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일과를 계획 실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2002). 아동 심리평가와 검사. 서울 : 학지사.
- 김민진(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 양옥승(2004). 보살핌의 텍스트로서 유아교육과정 이해. *유아교육연구*, 24(4), 247-262.
- 유혜령(1999). 소수 민족 유아의 유치원 생활 경험; 현상학적 이해. *교육인류학 연구*, 2(2), 139-170.
- 이기숙(1985). 한국 유아교육 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연구Ⅱ- 시설·설비모형의 적응 및 실외 환경. 서울 : 문교부.
- 이정금·김영란·강효정·한미라·임부연(2007). 산책활동 경험이 이끌어 주는 유아의 몸과 마음의 세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51-74.
- 임부연·최혜림(2006). 유아교사의 여성성 탐구 : 돌봄과 해방 담론의 아이러니. *유아교육연구*, 26(5), 119-143.
- 임성혜·손영수(2001). 유치원에서의 유아생활세계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유아교육연구*, 21(2), 85-109.
- 조경자(2005). 초등학교에 대한 유아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5(4), 81-103.
- 조상식(2002). 현상학과 교육학. 서울 : 원미사.
- Beekman, T. (1983). Human science as a dialogue with children. *Phenomenology and Pedagogy*, 1(1), 36-44.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Y :

Collier Books.
Fine, G. A., & Sandstorm, K. L. (1988). *Knowing children participant observation with minors*. Newbury Park, Calif : Sage Publications.

Creswell, J. W. (2005). *질적연구방법론*. 조홍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공역). 서울 : 학지사(1998년 원저발간).

2009년 6월 30일 투고, 2009년 8월 26일 수정
2009년 9월 11일 채택